

관련성 이론으로 살펴본
『거울 나라의 앨리스』 번역양상 연구
- 시언어를 중심으로

윤 소 영* · 김 혜 경**
(건국대) (배재대)

1. 서론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865)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¹⁾(*Through the Looking-Glass*, 1871)는 캐럴만의 특이한 언어를 통해 다양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등장시킨다. 동시에 이상한 나라의 존재들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새로운 하나의 영역을 구성할 정도로 색다른 특별함이 있다. 캐럴의 텍스트는 수학자였던 작가의 구조적인 시각과 분석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언어를 다룸에 있어 연금술사

* 윤소영(주저자), ** 김혜경(교신저자)

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후 『앨리스』로, 『거울 나라의 앨리스』는 『거울 나라』로 표기하기로 함.

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작가라는 점, 새로운 영토의 발견이라 할 정도로 아동문학 지평의 차원을 달리 하였다는 점에서 번역의 어려움이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원전보다도 번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뿐 아니라 번역의 품질에 대한 시각에서 보면 대상 독자에 따라 번역물이 다르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다.

『앨리스』시리즈 번역에 대한 연구는 김순영(2007), Yoon(2007), 이수진(2005a,b) 등에서 알 수 있듯 언어유희, 난센스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한 문학적 및 언어적 분석은 이미 상당부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거울 나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거울 나라』에는 난센스, 패러디, 신조어 등이 몇 겹의 조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텍스트 분석 자체가 쉽지 않지만 주석본을 참고하면 그 어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거울 나라』에 관한 연구는 난센스, 비유 등에 치중(이강훈(2007, 2009), 이수진(2005a,b) 등)한 편인 반면, 번역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고 특히 수록된 시와 시언어에 관한 분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시는 언어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번역서마다 함축된 시어 번역에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번역 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시 번역의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Jakobson(1966)이 지적한 바 있는데, 특히 ST의 시적구조를 TT에 반영할 수 없음이 거의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거울 나라』에 수록된 시들은 리듬, 각운 같은 시의 구조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시는 TT에 ‘~에 대해’, ‘~되었군’, ‘~했지’, ‘하다니’ 등의 각운을 취할 뿐 내용과 관련한 중요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시 형식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본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한편 『앨리스』시리즈 번역서는 독자에 따라 서로 상이한 텍스트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텍스트를 독해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상 독자에 따라 번역가는 번역 기법을 달리함으로써 번역물이 말과 글 중 어떤 면에 치중해 읽히는가에 따라 상이한 번역물을 생산할 수 있다. 가령 번역물의 양태를 살펴볼 때 가화성(speakability)과 가독성(readability)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대상 독자를 다르게 감안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

『거울 나라』는 『앨리스』보다 수학적 논리와 동음이의어의 말장난, 유희가 풍부하게 내포되어 있어, 동화지만 도덕적 교훈보다는 유쾌한 상상력과 말장난,

패러디, 난센스 등의 재치 있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고도의 언어적 묘미를 갖추고 있는 만큼 원전의 재미를 목표텍스트에 투영하기는 사실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특히 『거울 나라』에 나오는 시나 노래는 환상성과 난센스 요소가 탁월하고 등장인물도 거울에 반영된 상처럼 ‘대비’되거나 좌우가 뒤집힌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다. 특히 난센스 시에는 뜻을 종잡을 수 없는 모호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가령 시 「재버위키」(“Jabberwocky”)에서는 “frumious”, “mimsy”, “slithy”, “brillig”와 같이 캐럴이 만들어 낸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원전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번역물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같은 느낌으로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번역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원전 텍스트와 번역물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시 자체의 형식이 아닌 캐럴만의 독특한 시어를 번역서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이론과 관련해 『거울 나라』에 실린 시들의 시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어 번역에 나타난 중요한 요인, 특성 등을 꼼꼼히 짚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신조어와 명사 어휘 번역의 차이, 정보성과 충실성에 입각한 어휘 번역의 차이, 맥락에 따른 어투, 단어, 상관어 등의 차이로 대상 독자에 따른 지점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텍스트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시인 「재버위키」의 신조어와 난센스어들을 대상 독자에 따라 어떤 번역 전략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번역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명사 번역시 발생하는 다름에 주안점을 두면서 특히 고유명사표기에 있어 대상 독자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번역물을 비교할 때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간극이 있어, 각 번역가들의 취한 번역 전략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작품 내 등장인물간의 관계,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대상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투의 차이, 맥락에 따른 번역의 차이도 함께 비교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5편의 번역서를 비교하여 시 번역의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울 나라』는 『앨리스』와 비교할 때 시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편이고, 내용과의 관련성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등장인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ST(source text)의 시를 TT(target text)에서 어떻게 번역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다. 이를 위해 「재버위키」

를 먼저 분석하고 그 외의 시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한편 『거울 나라』에 수록된 노래나 시는 기존의 동요 등을 패러디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텍스트성이 잘 구현되어 있고, 다양하게 패러디함으로써 원작자의 의도를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층에 따른 패러디 시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번역물의 비교를 통해 번역가가 대상 독자층을 달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잣대로서 시어 번역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perber와 Wilson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1995)에 입각해, 번역된 시를 읽는 독자에게 가독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 또한 가화성의 확보가 어떤 중요성을 띠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관련성 이론과 가독성

ST와 TT의 각각의 언어는 역사, 문화, 사회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에 따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유지식 (mutual knowledge)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Neubert & Shreve 1992: 54)이어서, 공유정보가 부족할 때 화자와 청자, ST 독자와 TT독자사이의 소통은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원전과 등가를 이루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TL의 독자가 성인인지 아동인지 감안해야 하고, 공유 지식의 유추를 통해 정보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번역가는 SL의 독자가 ST를 읽을 때의 의미나 느낌의 수준을 TL의 독자가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정보의 정도나 가부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관련성 이론 이다. Sperber & Wilson(1995: 50)은 소통과 인지의 관계를 다룬 관련성 이론에서 명시적 추론에 따른 소통(ostensive-inferential communication)이 정보처리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시한다.

관련성 이론에 따르면 추가적인 정보는 정보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하고, 독자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독자 내면의 인지 세계와 관련성

이 있어야 하며, 문맥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Sperber & Wilson 1995: 38). 그러기 위해서 대상 독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번역가는 해당 독자가 원전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ST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ST와 TT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중요하다. 번역가는 역주나 각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지식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정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TT의 독자가 주석을 통해 공유된 지식을 가지고, SL의 독자가 ST를 읽는 것처럼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가능한 한 원전의 느낌을 제공하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대상 독자에 따라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번역가가 번역 시 대상 독자를 감안했는가를 알 수 있다. TT독자의 공유지식, 인지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각 독자의 이해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번역가의 임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정보 제공을 통해 가독성 향상을 위한 방책으로 연동되는 관련성 이론은 ST와 TT독자 간의 공유지식의 간극을 줄이는데 사용된 전략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하다. ST와 TT독자 간의 정보의 차이를 보완해주는 번역 기법으로는 필요한 정보의 추가, 대체, 생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상 독자에 따라 전달해야 할 지식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 기법을 선택할 때는 대상독자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독자에게 공유할 지식을 제공하여 이해충위를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상 독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정보가 다르고 주어진 정보에 대한 이해도 다르므로, 추가된 정보는 적절성이나 가독성 면에서 기대수준에 못 미치거나 역효과를 오히려 초래할 수도 있다. 대상 독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지의 범위나 배경지식을 넘어 제공될 경우,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그 정보는 글의 리듬이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문학 번역의 경우 가독성 및 가화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2.2 가화성

번역물의 대상 독자를 아동 및 청소년으로 상정하는 경우, 아동문학 번역의 특이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동문학 번역에 있어 중요요소 중 하나는 “가화성 (speakability)이다(신지선: 2005a). 스넬-혼비(Snell-Hornby 1988: 35)에

의하면, “가화성은 음운적 요소를 고려하는 번역으로 특히 희곡 번역과 관련해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희곡번역 외에 가화성을 가장 많이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은 아동문학이다. ‘말로 하기 좋은 상태나 정도’를 뜻하는 가화성에 대해 신지선은 “번역문을 소리 내어 표현하기 좋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신지선 2005a: 68)으로 지적한다. 대상 독자인 아동이 스스로 읽는 경우와 어른이 읽어주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읽기의 주체가 되든 듣기의 대상이 되든 상관없이 아동문학 번역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단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화자와 청자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소통에 있어 가화성은 쌍방 간에 중요요소로 작용한다. 즉 텍스트는 문맥에 맞게 무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화성의 확보라는 주제와 결부되는 것이다. 가화성이 보장되는가의 문제는 독자들이 내용에 대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아동문학의 경우, 독자가 스토리에 동일시하는 수준에 따라 몰입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서 관련성 이론을 접목해 생각해볼 수 있다.

관련성 이론에 의하면 독자는 텍스트를 해석할 때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는데,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에 더 주의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정보처리 역량을 통해 최대치의 인지적 효과를 얻고자 한다(Sperber & Wilson 1995: 40). 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습득한 지식, 경험을 총망라해 텍스트를 읽어낸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수용이라는 두 지점을 연결할 때, 관련성 이론이 접목되면 아동문학 번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아동문학작가는 가화성을 염두에 두고 어휘 선택 및 문장 구조를 다듬는 작업을 하게 마련이지만, 아동문학 번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감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신지선(2005a: 69)은 “아동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번역가들은 ST의 내용 전달에만 급급한 채 아동문학이 소리 내어 읽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가화성에 신경을 써서 번역물을 생산하는 것이 특히 아동문학 번역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장의 구조와 길이도 중요하다. 문장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어휘의 선택에 있어 연령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 독자의 이해와 몰입도가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가에게 대상 독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의 경우 말장난 등을 감안한다

면 특히 가화성이 보증될 때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 『거울 나라』 역시 말장난, 패러디, 신조어 등이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으므로, 특히 시 언어의 특이성을 집중분석함으로써 번역물의 가독성 및 가화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분석대상 텍스트

본 연구를 위해 선택한 다섯 가지 번역서는 『앨리스』와 『거울 나라』를 모두 생산한 번역가의 번역물로, 출간연도 순으로 아래와 같이 나열하였다.

표 1. 분석대상 텍스트

제목	출판연도	역자	출판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01	손영미(TT1)	시공주니어
Alice	2005	최인자(TT2)	북폴리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05	김경미(TT3)	비룡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07	김석희(TT4)	웅진주니어
앨리스	2015	정희성(TT5)	사파리

최인자는 마틴 가드너(Martin Gardner)의 상세한 주석본을 그대로 번역하여, 어휘 선택, 표현 방식, 번역 전략 등을 비교하기에 적절하다. 그 외의 4권은 비주석본 번역서다. 김희진에 의하면, 손영미(2001), 김경미(2005), 김석희(2007)의 번역은 번역가의 역량, 완역의 여부 등을 점검해 보았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완성도를 보인다고 평한다(2010: 87). 이들은 번역 기법, 번역 전략 등을 비교하기에 적절해 보이고, 정희성의 번역본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50주년 특별판으로, 원전 초판 출간 이후, 작가 생전에 새로 추가, 수정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무삭제 완역본이면서 가장 최근 출간된 책이라 기존 번역서의 어휘, 문법, 시의 번역 방식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듯하다.

3. 번역 분석

3.1 “Jabberwocky”에 구현된 신조어 번역 양태

이 시는 “the Jabberwock 을 죽이는 것에 관해 캐럴이 쓴 시로 신조어와 난센스 단어를 등장시키는 훌륭한 난센스시라 할 수 있다. 전혀 뜻을 알지 못할 무작위의 단어들이 아닌, 단어의 의미를 결합해 새로 만들거나 기존 단어의 일부를 줄여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의 인기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시에 재현된 “chortled 와 “galumphing 같은 신조어들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될 정도이고, “jabberwocky 라는 단어도 난센스 언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 시는 기본적인 시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쓰인 단어들 중 특이한 신조어가 많은 까닭에 번역이 어렵고, 번역가들은 각 시어마다 번역전략을 달리하기도 한다. 어떤 어휘는 TL에서 소리나 형태의 등가를 구축하고자 하고, 어떤 경우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ST와 등가 수준의 TL의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선 이 시에서는 신조어를 중심으로 ST에서 느껴지는 난센스적인 요소가 각 번역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래와 같이 첫 연에는 특히 많은 신조어를 찾아볼 수 있다.

ST: 'Twas brillig, and the slithy toves
Did gyre and gimble in the wabe:
All mimsy were the borogoves,
And the mome raths outgrabe.

TT1: 저녁 무렵, 유연활달 토우브
언덕배기를 선회하며 뚫고 있었다.
보로고브들은 모두 우울해했고,
침울한 라스는 끼익거리고 있었다.

TT2: 지글녘, 유근한 토브들이
사이넴길 한쪽을 발로 빙돌고 뺨뚫고 있었네.
보로고브들은 너무나 멍지했네.
몸 레스들은 껍뻍 울불었네.

TT3: 저녁밥 때 나긋알랑대는 토브들이
해변발을 빙글뱅글거리며 이리저리 뚫었네.
보로고브들은 모두 우울침울해하고

집떠온 래스들은 끼익끼익씩 울었네.

TT4: 저녁 무렵, 나긋하고 미끈한 토브들은
언덕에서 뱅뱅 돌면서 구멍을 뚫고 있었네.
보로고브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집 떠난 썩색 돼지들은 껍뻍거렸지.

TT5: 보글무렵, 나긋호리한 토우브들이
사통팔달발을 빙돌며 구똥었네.
보로고브들은 모두 구질볼쌍쌌고.
집떠온 래스들은 껍재거리고 있었네

위의 연 전체를 비교해보면 TT2, TT5는 신조어의 의미구성 면에서 다른 번역보다 추상성이 강하고, 특히 TT2를 읽었을 때는 의미를 거의 유추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TT1, TT3, TT4는 원전의 난센스적인 요소를 많이 순화시켜 다소 생소한 어휘가 생산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첫 행의 신조어들은 각기 다른 양태를 보이는데, 대상 독자를 감안했음을 알 수 있다. 각 번역물을 통해 보다 세밀히 살펴보자.

ST: 'Twas brillig, and the slithy toves

TT1: 저녁 무렵, 유연활달 토우브

TT2: 지글녘, 유끈한 토브들이

TT3: 저녁밥 때 나긋알랑대는 토브들이

TT4: 저녁 무렵, 나긋하고 미끈한 토브들은

TT5: 보글무렵, 나긋호리한 토우브들이

“brillig 는 ‘broil(굽다)’에서 나온 파생된 말로, ‘broiling dinner’는 ‘먹을 시간, 즉 오후가 끝날 때’를 뜻한다. 위 번역을 살펴보면 TT2는 대상 독자가 성인이고 TT1, TT3, TT4는 대상 독자가 아동이지만 TT5보다는 목표 대상 연령층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TT2, TT5는 자국화 전략을 이용하여, “brillig 의 ‘broil’의 의미를 TL의 문화권에서 익숙한 소리인 “지글, “보글 과 같은 의성어로 대체하고, ‘지글지글’ 혹은 ‘보글보글’과 ‘저녁’의 합성어를 만들어 원전에서 주교자 하는 재미를 살리려고 하였다. 반면에 TT1, TT3, TT4는 원전의 신조어가 주는 재미를 포기하고 의미만을 살려 “저녁 무렵, “저녁밥 때 라고 번

역하였는데, 이는 원전의 재미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많은 신조어를 알 수 없는 의미로 모호하게 번역할 경우, 명시성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아동 독자의 이해를 이끌어 내지 못해, 흥미나 관심이 저하될 수도 있다.

첫 행의 두 번째 신조어는 “slithy 는 ‘slimy(끈적한, 미끈한)’와 ‘lithe(나긋나긋, 유연한)’의 합성어이다. “slithy 도 위의 번역처럼 단어의 합성을 통해 의미를 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역시 번역 전략의 차이를 통해 대상 독자가 다름을 추정해낼 수 있다. TT2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생소한 단어지만 TL에서 익숙하게 연상할 수 있는 “유끈한 이라는 신조어를 채택하는데, 이는 성인 대상 독자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TT1, TT3, TT5는 합성된 두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의 범위내의 신조어로 대체하거나(“유연활달”, “나긋알랑대는”, “나긋호리한²⁾), TT4처럼 TL의 신조어를 만들지 않고 두 단어의 의미를 열거하는 방식(“나긋하고 미끈한”)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대상 독자가 아동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 2행의 단어들은 의미의 합성이라기보다는 파생어를 도출하는 신조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번역을 비교해보자.

ST: Did gyre and gimble in the wabee

TT1: 언덕배기를 선회하며 뚫고 있었다.

TT2: 사이넴길 한쪽을 발로 빙돌고 뿔뿔고 있었네.

TT3: 해변발을 빙글뱅글거리며 이리저리 뚫었네.

TT4: 언덕에서 뱅뱅 돌면서 구멍을 뚫고 있었네.

TT5: 사통팔달발을 빙돌며 구뚫었네.

“wabe 는 6장에서 엘리스가 “해시계 주변의 잔디밭(the grass-plot round a sun-dial) (TT1)이라고 추측한 말에 험프티 덤프티가 “앞뒤로 넓게 퍼져있는(It goes a long way before it, and a long way behind it-) (TT1)이라고 부연 설명한 단어다. TT2에서 “사이넴길 의 의미는 역주를 이용하지 않는 한 의미를 알 수 없고, 설명이 있다 해도 그 관련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편이다. TT1,

2) TT5는 “나긋호리한 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끈적한, 미끈한’의 의미인 ‘slimy’를 ‘날씬한, 호리호리한’의 의미인 ‘slim’의 의미로 번역하여 ST의 신조어와 의미상의 등가를 이루는 TL의 신조어라 보기 어렵다.

TT3, TT4는 이러한 난해함을 피하기 위해 이해 가능한 단어로 대체했고, TT5는 TT1, TT3, TT4보다는 원전의 재미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신조어를 내놓고 있다.

험프티 덤프티는 “gyre 를 “go round and round like a gyroscope(소용돌이 치듯 빙빙 돌다) 로 “gimble 을 “make holes like a gimblet(나사송곳처럼 구멍을 뚫다) 로 설명하고 있다. 대상 독자가 아동인 TT1, TT3, TT4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통해 원작시가 주는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높이려 하였다. 반면 성인 독자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TT2는 뚫고 들어가는 모양과 소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윙뚫고’라는 신조어로 합성어의 재미도 제공했다. TT5는 신조어의 재미를 살리려고 ‘구멍’에 중점을 둔 “구뚫었네 라고 만들어,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 재미를 첨가했다.

3행의 “mimsy 는 “나약하고 비참한 의 의미인데, TT2는 “빔지했네 라고 소리음 그대로 번역하여 ST에서처럼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소하고 난해한 신조어로 등장한다. 또한 TT5는 주어진 의미에 가능한 한 가까우면서 원전이 주는 재미를 부가하려는 의도로 “구질불쌍 이라고 표현하여 가화성을 구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행에 대해 험프티 덤프티는 “mome 이 ‘from home’의 축약적 표현이라 했고, “rath 는 ‘녹색 돼지의 일종(a sort of green pig)’으로, “outgrabe 는 “고함과 속삭임 사이에 재채기가 낀 것 같은 소리(something between bellowing and whistling with a kind of sneeze in the middle 라고 설명한다. 이를 근거로 TT3, TT5는 ‘집을 떠나 온’의 축약 형태인 ‘집떠온’이라는 신조어를 취해 가화성을 높이려 한다.

- ST: And the mome raths outgrabe.
- TT1: 침울한 라스는 끼익거리고 있었다.
- TT2: 몸 레스들은 껍뻍 울불었네
- TT3: 집떠온 레스들은 끼익끼익 울었네.
- TT4: 집 떠난 썩색 돼지들은 껍뻍거렸지.³⁾
- TT5: 집떠온 라스들은 껍재거리고 있었네

3) TT4는 1장과 달리 6장에서는 이 부분을 “집만 썩돼지는 휘팜쳤지. 라고 번역하여 “집떠난 과 “썩색돼지 의 축약 형태를 살려 표현하기도 한다.

TT1은 “mome 이 ‘엄숙한(grave)’을 뜻하는 solemome, solemone, solemn의 파생어이기에 ‘침울한’으로 번역하고 있다. 반면 한 언어를 다른 언어의 독자가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하는 것이 번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TT2의 “몸레스는 소리음만을 차용해 마치 외래어처럼 쓰는데다, 무엇을 지칭하는지 파악이 어렵다. 어떠한 유추도 불가능하겠지만 신조어를 소리음만 차용할 경우, 마치 고유명사처럼 캐럴의 ‘몸레스’로 쓰일 수 있다는 의도도 생각해볼 만하다면, 일견 가화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outgrabe의 경우 TT2, TT3, TT5는 원전의 의도대로 의미의 혼합을 추구하였으나, TT1, TT4는 마틴 가드너의 설명에 따라 shriek, creak에서 파생한 outgrabe를 “끼익끼익(squeaked) 소리를 뜻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의미로 번역하였는데 그 경우 ST에서처럼 재미를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이 외에도 「재버위키」에 등장한 신조어는 다음과 같다.

표 2. 「재버위키」 난센스 단어 번역

ST: frumious : fuming + furious				
TT1	TT2	TT3	TT4	TT5
씨근덕거리는	씩성난	무시무시한	씩씩거리는	사나운
ST: uffish : gruffish + roughish + huffish.				
TT1	TT2	TT3	TT4	TT5
어수선한	똥탁한	거칠고 거만한	거칠고 찌무룩한	혼란스런
ST: burble : bleat + murmur + warble. 또는 burst + bubble				
TT1	TT2	TT3	TT4	TT5
부글대며 달려왔다	점점 더 뽕뽕해졌지	시끌시끌 요란하게 나타났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왔지	요란스레 달려왔지
ST: galumphing : gallop + triumphant				
TT1	TT2	TT3	TT4	TT5
의기양양하게	우쭐경중	의기양양하게	의기양양하게	의기양양하게
ST: chortled : chuckle + snort				
TT1	TT2	TT3	TT4	TT5
기빠서 꺄꺄 웃었다	키득키득 웃었네	기빠서 꺄꺄 웃었네.	기빠서 코를 울렸네.	기빠서 크게 웃었네.

각 번역서를 비교해보면, 「재버위키」에 나오는 신조어나 난센스 단어들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ST와 의미상의 등가를 이루면서도 난센스 단어들이 주는

재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각 번역서는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TL의 신조어를 만들고자 하였다. 대상 독자가 아동인 경우 ST의 난센스 단어들은 많은 부분 독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관련성 이론에 입각해 번역하여 가화성을 확보하였다. 난해함을 피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대체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때는, 합성된 단어를 TL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풀어쓰기도 한다. TT2의 경우와 TT5는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T의 신조어가 주는 재미를 살리려는 노력이 드러나 있다. 특히 TT2의 번역을 살펴보면 번역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신조어와 난센스 단어의 묘미를 살리려는 시도를 통해 대상 독자를 성인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신조어 번역시 원전과 의미의 등가를 이룰 뿐 아니라 의미의 합성이나 의미유추의 방식에도 원전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그러나 대상 독자가 의미유추나 이해의 범위가 좁은 아동일 경우는 이러한 신조어가 구사하는 재미를 충분히 구현한다고 해도, 오히려 가독성이나 가화성 면에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번역가들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의미의 전달에 보다 중요성을 두어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3.2 정보성에 입각한 어휘 번역

다음은 보통 명사나 고유 명사를 번역하는데 있어 TL 독자의 정보성의 수준에 따라 번역을 달리한 경우들을 비교하겠다. 4장 17연 4행의 “pocket handkerchief”에 대한 각 번역은 다음과 같다.

- ST: Holding his pocket handkerchief / Before his streaming eyes.
- TT1: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며.
- TT2: 눈물이 흐르는 눈을 / 포켓 행커치프로 훔치면서.
- TT3: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전에 / 손수건을 들고
- TT4: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물을 훔치면서
- TT5: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4개의 번역서는 “pocket handkerchief”를 “손수건”으로 번역하는데, TT2만

“포켓 헵커치프 라는 단어를 소리음 그대로 사용하면서 “포켓 헵커치프는 양복 윗도리 윗주머니에 장식용으로 꼽고 다니는 수건: 옹긴이 라는 역주를 덧붙여 놓았다. “pocket handkerchief 는 “손수건 과 직접적 의미에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그 장면을 그리며 떠올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원전에 충실한 시각적 이미지 전달을 위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관련성 이론을 반영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역주를 첨가하며 소리음으로 표기한 것은 원전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를 더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번역가의 의도가 담긴 듯하다. 반면 페르미어(Vermeer)에 따르면 번역은 TL환경에서 TL의 특정 독자에 맞는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므로(1987: 29), 어휘의 충실성보다는 TT의 목적에 부합하고 TL독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의미전달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동 대상의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TT2를 제외한 다른 번역서들은 모두 의미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손수건 이라고 번역하였다.

같은 전략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I sometimes search the grassy knolls
For wheels of Hansom-cabs.(8장 7연 3-4행: 246)

아동이 문학작품을 읽으며 재미와 감동 혹은 교훈을 느끼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정보가 제공되거나 SL과 TL간의 사회문화적 간극이 극소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상 독자의 지적 능력과 가독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독자의 효율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Hansom-cabs 은 마틴 가드너의 주석에 따르면 ‘이륜마차’로 ‘두 개의 바퀴와 뒤쪽에 운전자를 위한 높은 좌석이 달린 덮개 마차(‘covered carriages with two wheels and an elevated seat for the driver in the back’ 248)’이지만, TT2, TT3, TT4, TT5는 “이륜마차 로, TT1은 “마차’로 번역한다. SL의 독자와 TL의 독자 간의 정보차이를 좁히기 위한 전략으로, 번역가들은 TL의 독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맥락상 구체정보가 오히려 이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으므로, 특히 TT1은 TL의 문화에서 인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과감히 생략, “마차 로 표기함으로써 대상 독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Gutt(2000:31)가 제시

한 효율의 원칙일 수 있는데, 한 문맥에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노력이 적을 때 효율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관련성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모나 베이커(Mona Baker) 또한 독자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 전하고자 하는 특정 의미가 텍스트 전개상 중요하지 않다면 그 단어나 표현을 삭제하는 방법을 쓸 것을 제시하고 있다(1992: 40). 최소한의 의미전달이 오히려 대상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또 다른 예로, 6장에 나오는 시의 일부 중에서 내용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corkscrew 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자.

ST: I took a corkscrew from the shelf:

I went to wake them up myself.

TT1: 나는 선반에 놓인 마개뽑이를 가지고

TT2: 나는 선반에서 코르크 마개 뽑이를 찾아서

TT3: 나는 선반에서 타래송곳을 가져와

TT4: 나는 선반에서 타래송곳 하나를 집어 들고

TT5: 나는 선반에서 마개 따개를 집어 들고

“corkscrew 의 사전적 의미는 ‘타래송곳’이다. TT3와 TT4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표기하고 있으나, 대상 독자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단어를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기에는 ‘타래송곳’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단어는 아니므로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독자인 경우 적절한 가독성을 보이기 어렵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역주를 사용하여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는 읽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역주를 통해 구체적 도구의 이름을 표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부분이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TT1, TT2, TT5는 각각 “마개뽑이”, “코르크 마개뽑이”, “마개 따개 로 표기하고 있다. 내용 전달의 효율성 면에서 “코르크 라 써서 굳이 재료를 표기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 “마개 따개 는 다른 도구를 연상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중에 “마개뽑이 가 이야기의 흐름에 가장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어나 표현이 주어진 텍스트에서 관련성을 갖는가의 여부는 대상 독자의 인지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 독자의 지적수준, 인지능력에 따라 관련성 있는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8장 4연 5, 6행의 고유명사의 표기를 비교해보자.

ST: they make a stuff they call / Rolands' Macassar Oil

TT1: 사람들은 거기서 머릿기름을 만들지,
흔히 롤런드의 마카사르 향유라고 불리는.

TT2: 나중에 사람들은 로랜드 머릿기름이라고 부르는 것을 / 만들었어.

TT3: 그러면 사람들이 롤랜드 마카사르기름* 이라는 / 물건을 만들어.
(*머릿기름의 일종- 옴긴이)

TT4: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 머릿기름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지.

TT5: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 롤런드의 머릿기름을 만들지.

대상 독자가 성인이고 “Rolands' Macassar Oil 가 머릿기름이라는 구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대로 “롤런드 마카사르 향유 라고 전체를 표기 하거나 역주를 달아 그것이 머릿기름이라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주어도 TL의 독자가 읽을 가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문제는 대상 독자의 연령이 낮아서 인지 정보의 범위가 적은 경우는 “롤런드 마카사르 향유 라는 온전한 번역이 오히려 독서의 흐름을 끊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부족한 정보의 보충을 위해 역주를 다는 경우도 읽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 번역가의 전략적 선택을 비교해보자. TT2과 TT5에서는 어려운 고유명사를 단순화 시켜 독자가 접하기 용이한 표현으로 만들었고, TT1은 TL의 독자에게는 없는 ‘머릿기름’이라는 정보를 “a stuff 라는 단어 속에 추가시켜서 별도의 역주 없이도 “머릿기름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고 그 이름이 “롤런드 마카사르 향유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TT4는 고유명사인 이름을 완전히 없애고 “머릿기름 이라고 썼는데, 이는 대상 독자의 가독성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 본다. TT3의 경우는 고유명사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역주를 달아 그것이 ‘머릿기름’이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다양한 전략은 번역가가 대상 독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예로, 8장의 시 3연 2행인 “To dye one's whiskers green 을 비교해 보면 ‘구레나룻’을 뜻하는 “whiskers 를 TT1, TT2, TT5에서는 단순히 “수염 이라고 번역했지만, TT3과 TT4에서는 “구레나룻 이라고 글자 그대로 충실하

게 번역해놓았다. 정보전달의 충실성면에서는 “구레나룻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대상 독자가 성인인 경우는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인지범위를 벗어난 단어가 아니겠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라면 가독성면에서 볼 때 “구레나룻 라고 하면, 위치에 따라 수염이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추가정보를 제시하여 역주를 달아 설명하는 것보다 TT1, TT2, TT5처럼 구체 정보를 생략한 “수염 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동에게는 가독성 확보라는 점에서 적절한 번역일 수 있으나, 수염은 얼굴에 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불리므로 구체적으로 번역하는 것도 큰 상관은 없다고 본다.

3.3 충실성에 입각한 어휘 번역

8장의 다음 노래는 기사가 앨리스를 위로하기 위해 불렀던 노래로, 『앨리스』의 「쓸쓸한 황무지에서」라는 이전에 쓴 시를 확장한 시다. 이 노래 중 몇 가지 번역 사례를 충실성과 관련해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I'll tell thee everything I can;
 There's little to relate.
 I saw an aged aged man,
 A-sitting on a gate.
 “Who are you, aged man I said,
 “and how is it you live?
 And his answer trickled through my head
 Like water through a sieve.

우선 8장 2행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ST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는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ST: There's little to relate.	
TT1: 할 말은 별로 없어도	TT2: 관계는 거의 없지만
TT3: 서로 별 상관은 없어도	TT4: 할 말은 거의 없지만
TT5: 딱히 할 말은 없지만	

TT1, TT4, TT5는 “relate 의 의미 중 ‘이야기하다’로, TT2와 TT3는 ‘관련 시키다’라고 번역하였다. 문장구조상 ‘이야기하다’의 의미가 적절해보이고, “모든 걸 말하리. 할 말은 별로 없어도 라는 TT1의 번역에서처럼 “모든 것 과 “별로 의 난센스적인 재미를 주기도 한다. 반면 TT2과 TT3는 번역가가 대화의 흐름상 TL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춰 번역하였다.

8장 3행에서는 단어의 번역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ST I saw an aged aged man,

TT1: 꼬부랑 할아버지 TT2: 늙고 늙은 남자

TT3: 늙디늙은 사람 TT4: 늙고 늙은 노인 TT5: 늙은 노인

우선 TL에 “aged 의 반복강조 표현인 “aged aged 와 의미의 등가를 이루는 단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굽디고운’, ‘푸르디푸른’에서 알 수 있듯이, TT2의 “늙고 늙은 과 TT3의 “늙디늙은 두 표현 중 후자가 한글에서 더 자연스럽고, 점층적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TT4와 TT5를 비교해 보면, “노인이라는 단어는 ‘늙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TT5에서 “늙은 노인은 ‘역전앞’, ‘고목나무’, ‘동해바다’, ‘약수물’ 등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 겹으로 보기에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TT3의 “늙디늙은 사람 과 TT5의 “늙은 노인은 ‘늙은’을 두 번 강조 하고, TT3는 원전에서 보여주는 형태상 단어의 반복을 살려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TT5의 “늙은 노인은 TL의 독자에게 이중적 의미 반복을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TT1은 “aged aged 를 TL의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아주 늙은’을 이미지화할 때 사용되곤 하는 “꼬부랑 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꼬부랑 은 본래 ‘허리가 굽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aged aged 의 의미에 허리가 굽었다는 정보를 추가한 셈이다. 늙음을 시각적 이미지와의 관련성을 통해 번역했다는 점에서 의미상 증가보다는 의미 부연을 구현했다 볼 수 있다. 하우스(House)는 등가를 이루는 번역이란 TT가 그 문화에서 ST의 지위를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1981: 125). 다시 말해, ST가 SL의 독자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나 느낌을 TT가 TL독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역시 의미 부연을 통해 TL의 문화에 어울리는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는 단어 선택의 문제점을 드러낸 번역으로, 8장 10연 중 첫 행을 살펴보자.

- ST: With eyes, like cinders, all aglow,
 TT1: 눈은 타다 남은 숯처럼 이글거리고,
 TT2: 재처럼 붉게 빛나던 두 눈,
 TT3: 눈은 석탄재처럼 불타고
 TT4: 눈은 잉걸처럼 빨강게 빛났고,
 TT5: 재처럼 빨강게 빛나던 눈.

독자에게 이야기의 재미를 살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노르트(Christiane Nord, 1997: 39)의 지적처럼 경우에 따라 다른 번역이 생성될 것이다. 번역이라는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신지선 2005b: 127). 스코포스 이론(Reiss & Vermeer 1984, Nord 1991, 1997)에 따르면, 모든 번역은 소통적 번역이고 기능주의적 특성을 띤다. 이런 맥락에서 비교해 보면, 다른 번역서와 다르게 TT4는 “cinders 를 “잉걸 이라고 번역했는데, “잉걸 이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덩이 를 뜻하므로 TT2나 TT5처럼 단순히 “재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원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분명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T4의 대상 독자가 아동임을 감안한다면, “잉걸 이라는 번역이 역주가 없는 상황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미지로 인지할 수 있는지, 재미를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원전의 단어와 등가를 이를 경우에도 가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라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aglow 를 “이글거리다 라고 표현하여 “잉걸 의 ‘이글거리는’이라는 의미로 근접한 이미지를 도출한 TT1의 번역이 오히려 더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은 단어 번역의 오류가 보이는 부분이다.

- ST: Mix sand with the cider, and wool with the wine--
 TT1: 사이다엔 모래를, 포도주엔 양털을 섞어,
 TT2: 재와 모래, 양털과 포도주를 섞어라.

TT3: 모래에 사과 주스를 섞고 양털에 와인을 섞어라.

TT4: 모래와 사과술을 섞고, 양털과 포도주를 섞어라.

TT5: 사과주에는 모래, 포도주에는 양털을 넣고.

“cider 를 ‘사과주’ 또는 ‘사과주스’로 번역한 TT3, TT4, TT5와는 대조적으로, TT1은 “사이다 라고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하였다. “cider 가 TL의 독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이다’가 아니나, TT1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은 TT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 어울리는 단어로 자국화한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TT2에서 “재 로 번역한 것은 『엘리스』에 실린 “cinder 를 오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8장 5,6행에 나오는 호칭에 대한 번역을 비교해보겠다.

ST: “Who are you, aged man. I said, / “and how is it you live?

TT1: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어떻게 사세요?

TT2: ‘당신은 누구시죠, 노인이어? 나는 몰었네.’ / ‘어떻게 사셨죠?’

TT3: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어떻게 사시나요?

TT4: “택은 뉘시오, 노인장? 그리고 어떻게 사시오?

TT5: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어떻게 사세요?

호칭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고, 특히 아동 도서의 경우에는 그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ST의 언어적 충실성에 입각하여 번역하는 것과 언어 외적으로는 TL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적절하고 이해 가능한 어휘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 하에 “aged man 이라는 호칭을 어떻게 표기해놓고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이것은 ‘노인’의 의미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대화의 맥락에 가장 적절한 호칭으로 바꿀 수 있다. TT2에서 “당신은 누구시죠, 노인이어? 나 TT4의 “택은 뉘시오, 노인장? 은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체에 어울리는 호칭이 아니고, 더구나 독자가 아동일 경우 문화적 배경 지식과 인식 범위에 적합한 단어여야 한다. 이보다는 ‘할아버지’가 사회문화적으로 아동에게 더 정감 있고 익숙한 호칭이다.

3.4 맥락에 따른 어휘 번역

관련성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맥락적 관련성(contextual relevance, 108)에 입각해, 8장 3연 7, 8행의 어투를 비교해 맥락에 따른 번역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ST: cried, “Come, tell me how you live!
And thumped him on the head.
TT1: 나는 소리쳤지. “어떻게 사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머리를 탁탁 쳤어.
TT2: 나는 소리쳤네.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잖소!’
그리고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네.
TT3: 와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하고 소리치며 할아버지의 머리를 쥐어박았지.
TT4: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잖아!
그러고는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지
TT5: “어떻게 사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다음 노인의 머리를 탁탁 쳤지.

이 대화는 두 가지 부분, 어투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화체로 이어지는 이 노래는 원전에서는 시의 운율이나 리듬을 갖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지만 번역문에서는 그러한 시 형식은 살리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전개된다. TT4를 보면 다른 번역들과는 다르게 할아버지와 대화에서 존대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전 대화는 “댁은 뉘시오, 노인장? 그리고 어떻게 사시오? 라는 어투를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잖아! 와 같이 거친 반말로 바뀌고 있다. 이는 그 다음의 “그러고는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지. 라는 대사와 적절한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 여겨진다. TT4는 이 노래의 다른 대화에서도 같은 어투로 번역해놓았다.

나는 노인을 마구 흔들며 소리를 질렀지/ 노인의 얼굴이 새파래질 때까지.
“어서 말해 보라니까./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나 TT4의 대상 독자를 아동으로 본다면, TL의 독자가 속하는 사회문화

적 정서를 고려한 번역도 필요하다고 본다. 노트에 따르면 번역가는 원작가의 의도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고, 자신이 원문을 해석한 것을 목표언어 독자들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언어화하여야 하며, ST 독자와 TL 독자들의 배경지식과 기대는 같거나 번역가에 의해 동일하게 되어야 하므로(1997: 86),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며 원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표현방식 등을 TL의 독자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두 번째 행의 표현을 비교해보면, “thumped him on the head”에서 ‘thump’는 ‘주먹 등으로 세게 치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이것은 강하게 내리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므로 그 단어의 강도, 모습과 의미상 등가를 이루기 위해 TT2, TT3, TT4에서는 각각 “내리쳤네”, “꺾어박았지”, “내리쳤지”라고 번역하였다. 다른 번역서들과 비교해 볼 때 TT1와 TT5의 “탁탁 쳤다”는 다소 순화된 표현으로, 반복된 행동이라는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정보의 추가를 통해 관련성을 확보하여 독자가 받아들이기 용이한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동 독자용 번역에서 ST의 폭력적 어휘를 순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맥락상 단어의 번역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의 예를 비교해보자.

His accents mild took up the tale:
 He said “I go my ways,
 And when I find a mountain-rill,
 I set it in a blaze;
 And thence they make a stuff
 they call Rolands’ Macassar Oil--(8장 4연:245)

맥락상 의도적으로 의미를 강조해야 하는 경우와 다르게, 위 노래의 2행 “I go my ways.”은 “내 길 을 간다는 의미를 굳이 강조하여 표현할 맥락상의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 다른 번역서들은 “I go my ways.”를 “길을 가다가”라고 번역한 반면, TT2, TT4는 “나는 내 길을 걸었소”, “나는 내 길을 떠나네.”라고 번역한 이유가 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의 경우는 맥락상 “my”를 강조하여 밝혀야 할 상황이 아니므로 “my”의 의미를 부연할 경우 TL의 독자가 접하는데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은 8장 4연의 4행으로, 특히 번역서간 의미 차이가 매우 크다.

ST: And when I find a mountain-rill, I set it in a blaze

TT1: 그곳에 불을 지른다네.

TT2: 나무껍질을 벗겨서 표시를 해놓았지.

TT3: 그것에 불을 놓지.

TT4: 나무껍질을 벗겨서 표시를 해 놓지.

TT5: 나무껍질을 벗겨서 표시를 해 놓았지.

각 번역서는 “I set it in a blaze 에 대한 번역을 전혀 다른 두 가지로 선보인다. TT2, TT4, TT5는 ‘나무껍질을 벗겨서 표시를 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TT1와 TT3는 ‘불을 지르다’라고 번역하였다. ‘blaze’는 ‘불꽃, 화염(a strong flame that burns brightly)’이라는 의미와 ‘(나무껍질에 새긴) 표시(a light-colored marking)’라는 전혀 무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른 번역이 나오게 된 것은 번역가가 단어의 의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맥락상 뚜렷한 관련성을 찾기 힘들 때라 할 수 있다. 한 문장만 단독으로 번역하는 경우 ‘불을 지르다’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연상되지만, 전체 맥락에서 의미를 유추해 볼 때, ‘시내(a mountain-rill)를 만나다’와 ‘불을 지르다’가 맥락상 관련성이 적다고 여겨지므로 TT2는 ‘산 속에서 시내를 만나면 / 나무껍질을 벗겨서 표시를 해놓았지.’로 번역하였고, TT1은 “blaze 의 ‘불’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불’과 관련성이 적은 ‘시내’보다는 “계곡 으로, ‘길을 가다가 / 작은 계곡을 발견하면 / 그곳에 불을 지른다네.’라고 불을 지를 수 있는 의미의 관련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9장의 “Bonny Dundee 를 패러디한 Sir Walter Scott의 노래 중 맥락상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번역의 유사를 보여주는 두 행을 비교해보겠다.

ST: And welcome Queen Alice with thirty-times-three!

TT1: 서른 번의 세 배로 앨리스 여왕을 환영하세!

TT2: 그리고 삼십 곱하기 삼으로 앨리스 여왕을 환영하라.

TT3: 서른 번 곱하기 세 번 만세를 부르며 여왕을 환영하세!

TT4: 그리고 앨리스 여왕을 환영하라. 서른 번의 만세 삼창으로!

TT5: 서른 번의 세 배로 앨리스 여왕을 환영하라!

TT4는 “thirty-times-three 을 다른 번역들과 달리 “서른 번의 만세 삼창 이라고 표현한다. TL에 ‘만세 삼창’이라는 의미상 등가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존재하므로 이 행만 보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한 듯하지만, 이 번역은 다음 연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

ST: And welcome Queen Alice with ninety-times-nine!

TT1: 아흔 번의 아홉 배로 환영하세!

TT2: 그리고 구십 곱하기 구로 앨리스 여왕을 환영하라.

TT3: 그리고 아흔 번 곱하기 아홉 번 만세를 부르며 앨리스 여왕을 환영하세!

TT4: 그리고 앨리스 여왕을 환영하라, 아흔 번의 만세 구창으로!

TT5: 여왕을 환영하라, 아흔 번의 아홉 배로!

어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TT4는 “만세 삼창 을 쓰고, 다음 연에 “만세 구창 이라는 신조어로 대비시켜 표현의 재미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게 만세 구창이라는 단어는 어색할 뿐 아니라, 그 단어로는 언뜻 90번을 9번이나 한다는 의미가 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아동에게는 “만세 구창 이라는 말이 “만세 를 아홉 번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 노래 다음에 앨리스가 “Thirty times three makes ninety. I wonder if any one’s counting? 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해 TT4는 “만세 삼창 서른 번이면 만세가 아흔 번이야 누군가가 그걸 세고 있을까? , TT1은 “30 곱하기 3은 90이지. 누가 세고 있을까? 라고 번역하고 있다. 맥락상 적절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TT1과 TT5에서처럼 “서른 번의 세 배로 , “아흔 번의 아홉 배로 가 관련성 면에서는 더 적절해 보인다.

4. 결론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는 다양한 언어적 특이성을 보유한 텍스트다. 난센스, 언어유희, 신조어 등 수학자 캐럴의 주도면밀한 언어적 구성이 돋보이는 텍스트다. 번역학적 관점에서는 언어적 특이성이 집중된 시언어 번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번역가의 어휘선택이 대상독자와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거울 나라』는 『앨리스』와 비교해 대체적으로 길이가 긴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 쓰인 신조어 등은 ST에서도 읽기에 어려움이 있

다는 점에 주목하여 번역서 비교를 통해 번역가의 노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주된 논점으로 상정하였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시형식보다는 『겨울 나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시어에 대해 집중 분석함으로써, 가화성 및 가독성을 구축하는데 있어 관련성 이론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시인 「재버위키」의 경우 독특한 신조어가 난센스의 수준으로 혼합 조성되어 있다. 마틴 가드너의 주석본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신조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번역본은 다양한 시 번역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상 독자에 따라 번역 전략이 다름을 도출함과 동시에 신조어의 이해를 위해 관련성 이론을 접목해 살펴보았다. 각 번역가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번역상의 간극이 발생할 때 어떠한 번역 전략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번역물의 비교를 통해,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작품 내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화자와 청자를 감안하는 것이 어투의 적절함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자를 고려해야 하는 함은 어투의 적절성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이 텍스트가 다양한 난센스 표현과 신조어뿐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페리디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물의 재현양태를 통해 대상 독자를 유추해낼 수 있었다. 지적, 인지적, 정서적 수준이 아직 미흡한 아동을 대상으로 번역할 때는 성인 대상의 번역물과는 달리 의미의 생략, 대체, 부연 등의 기법을 차용하였고, 대상 독자의 인지 범위에 적절한 언어, 문화적 관련성을 도출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이 적용되었다. 신조어, 명사, 고유명사, 비유 표현, 어투 등의 번역을 보면,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원전과 최대한의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번역가의 분투가 잘 나타나 있다. 시어 번역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대상 독자에 따라 번역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TT1은 다른 번역서보다 대상 독자를 고려한 번역의 정교함이 좀 더 두드러졌다. 반면 TT2는 상세한 주석을 포함하고 있고, 시어 번역에 있어서는 아동이 적절한 관련성을 유추하기 어려운 번역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맥락상 적절하며 독자의 기존 지식과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성 이론에 근거하여 맥락에 주어진 정보의 가감에 따라 달리 표현된 어휘로 인해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시어 번역 사례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독자의 배경 지식과 관련성 있는 적절한 어휘 선택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번역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번역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02) 「영한번역에서의 은유법 연구」. 『번역학연구』 3(2): 82-112.
- _____ (2011) 「정보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추가 정보 제공 방법」. 『번역학연구』 12(1): 35-73.
- 김순영 (2007)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통해 본 언어유희(pun)의 번역」. 『번역학연구』 8(2): 31-53.
- 신지선 (2005a)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가화성(Speakability)」. 『번역학연구』 6(1): 65-98.
- _____ (2005b) 「아동문학 번역시 스크포스 이론의 적용」. 『번역학연구』 6(2): 126-140.
- 이강훈 (2007)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패러디와 상호텍스트성」. *Foreign Literature Studies*, 27: 259-279.
- _____ (2009) 「거울 속의 언어: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엘리스』」. 『세계문학 비평연구』 28: 181-205.
- 이수진 (2005a) 「년센스와 센스 - 루이스캐럴의 엘리스」. 『영어영문학21』 18(1): 129-151.
- _____ (2005b) 「루이스 캐럴의 언어게임 - 엘리스 이야기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 12(1): 97-118.
- Gardner, Martin (2000) *The Annotated Alice*. New York: Norton.
- House, Juliane (1981)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Jakobson, Roman (1966)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Massachusetts: MIT Press.
- Neubert, Albrecht and Gregory M. Shreve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 Ohio: The Kent State UP.
- Nida Eugene and Charles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 Nord, Christiane (1991) 'Scopos, Loyalty and Translational Conventions', *Target* 3(1): 91-109.
- _____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 Reiss, Katharina and Vermeer, Hans (1984)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Niemeyer.
- Snell-Hornby, Mary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perber, Dan & Wilson, Deirdre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Second Edition, Cambridge: Blackwell.
- Vermeer, Hans (1987)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in L. Venuti (ed. 2000) London: Routledge.
- Yoon, So Young (2007) 'A Study on Translation Strategies for Wordplay: Comparing Two Korean Translations of *Alic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8(2): 259-280.

<분석에 사용된 텍스트>

- Carroll, Lewis (1982)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Glass*. New York: Oxford UP.
- 캐럴, 루이스. (2001)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손영미 역. 서울: 시공주니어.
- _____ (200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김경미 역. 서울: 비룡소.
- _____ (200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최인자 역. 서울: 북폴리오.
- _____ (200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김석희 역. 파주: 웅진주니어.
- _____ (201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희성 역. 서울: 사파리.

[Abstract]

**A Study of Translations of *Through the Looking-Glass*
from the Perspective of Relevance Theory
— Focusing on Poetic Language**

Yoon, So-young · Kim, Hye-kyung
(Konkuk University)(Pai Chai University)

Lewis Carroll's *Alice Series* comprise dual readership between adult and child. Among them, *Through the Looking-Glass* is a salient text for his particular language in use related to nonsense, coinage, wordplay, etc. Thus,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aspects of different cases of translated and parodied words in poems.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requires more speakability and readability than adult literatur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exts. Translators adopt translation strategies including ellipsis, replacement and explanation, to narrow the gap between ST and TT with a view of equivalence. For this analysis, five Korean translations are selected to show various aspects of translations of poems in *Looking-Glass* and what translators put emphasis on in electing proper words. In particular, its main focus is on poems: there can be found many long poems, which are meaningful to show the path to understand this text. First of all, "Jabberworky" reveals various kinds of new nouns, which cannot be easily deciphered even in ST. For example, two-word combination words like "galumphing" and "chortle" are not easy to translate into TL. Especially when applying relevance theory to these words, Korean translators produce appropriate words for domestic readers. Also, coinages in "Jabberworky" reveal diverse translated aspects in each translation. This study shows how difficult it can be to translate figurative language and parodied words. From this perspective, TT1 seems to be a proper

translation for children; TT2 for adults. In conclusion, translators' roles are very important in mediating readership and relevance theory in translation processes.

▶ Key Words: *Through the Looking-Glass*, relevance theory, speakability, readability, coinage

윤소영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조교수

sweetie33@hanmail.net

관심분야: 영문학, 번역

김혜경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조교수

khk814@hanmail.net

관심분야: 영어학, 번역

논문투고일: 2017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6일